

더불어민주당 산·합·거·합 지역위원장 선정된 김기범 박사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김기범(더불어민주당). 1969년생. 경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전)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 역임.

기범 박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류영수> 오늘 채널경남 방송에 나오셨는데 지난 선거에는 패했지만 군민께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기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기범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김기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류영수> 존칭은 김박사로 하겠습니까. 김박사님 들리는 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 등록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기범> 네,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공모가 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권문상 지역위원장님께서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류영수> 왜 지역위원장을 하려고 하나요?
 김기범> 저는 군수선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을 신청하기에는 당

경력도 짧고 군수선거에 낙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위원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권문상위원장님께서 해 놓으신 업적과 지역위를 잘 받아서 더 많은 당원들을 영입해서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위한 4개 군 조직을 재개편, 당원 교육 및 당원단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지역위 내의 각종 위원회 활성화, 정기적인 당원 워크숍을 통한 더불어민주당원의 자부심 고취, 지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홍보와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더불어민주당이 뿌리를 내리고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류영수> 김박사님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어떤분은 다음 총선 도전을 위해서 지역 위원장에 등록 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김기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선을 위해 지역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에서 뿌리

를 내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류영수> 김박사님은 아직도 거창군수에 꿈을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김기범> 네, 맞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선거를 통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습니다.
 류영수> 김박사님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는 아예 유지 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 하는 군민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군민간에 갈등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범> 교도소문제로 인해 군민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도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해결하고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도소이전을 통해 해결하면 합니다.
 현 교도소 유치지리에 공공의료원이나 청소년체력타운을 조

성하고 이전할 곳에 교도소를 세운다면 대형 공사 두 곳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류영수> 지난 6월 국회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님을 만났는데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김기범> 네, 지난 6월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영기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총회장님과 장마리아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은 선거전부터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초 두분을 만나서 거창의 청년들을 위한 미국의 한인 기업에 인턴쉽 또는 연수, 학생들의 어학연수, 거창지역의 우수농·임산물 수출, 승강기 관련 제품 수출 등등을 MOU체결을 통해 현실화시키려고 했으나 저의 신분(?)이 그럴 위치가 아니라서 얘기만 나누고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돌아왔습니다.
 김기범 박사님 지금 막 단수후보로 추천되어 거·합·산·합 지역구 위원장에 결정 되었는데 지역구 당원 동지와 4개 군군민에게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기범>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가 잘 나서지 아니

라 많이 부족하지만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라는 사명감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지역위원장에 신청해 주신 양동인 전 군수님과 조현진님, 김의성님께도 감사드리며 당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원동지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거·합·산·합 지역위원장에 확정된 김기범 박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과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자가 생각하는 당 혁신 방안과 바람직한 차기 지도부상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성원에 부합하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며 오늘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지사 "겸손하고 유능한 공무원 돼 달라" 도민 속으로·도민 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



3.15국립묘지에서 헌화하는 김경수 도지사.

하는 '적재적소'와 달리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먼저한 뒤 그의 성격과 업무에 따라 책임자를 찾겠다는 뜻으로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은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라며 "경남도정을 혁신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인사 말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직급에 따른 지정좌석 없이 직원들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착석한 채 진행됐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의전의 최소화, 간소화를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임기가 시작될 전날(1일)에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가 대비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 김경수 도지사 '온라인 취임식'으로 도민들께 인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일 도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계정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의 '온라인 취임식'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제37대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김 지사는 첫날 태풍 '쁘라삐룬'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2일 예정된 자신의 취임식을 취소했다. 지난 2일 정식으로 첫 출근한 김 지사는 사무인수인계서와 취임선서서 서명,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진행된 취임선서서로 취임 절차를 간단히 마무리하고, 영상을 통해 취임사를 전했다.
 영상으로 구성된 '온라인 취임식'은 <도민 속으로·도민

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슬로건으로 도민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 TF'에 소속된 도민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온라인 취임식'의 첫 순서는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경남이 묻습니다' 영상이다. 남녀노소 도민들이 새로운 경남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선거 기간 김 지사가 도민들과 만나는 모습에 김 지사의 육성 내레이션이 포함됐다. "소통, 협력, 상상, 민주를 기치로 모든 도민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든든하다"고 김 지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의 선서' 영상에는 자영업자, 노동자, 중소기업가,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도민과 노인, 여성, 청년, 아이가 등장한다. 이들은 위

기에 빠진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지는 김경수 지사의 취임선서는 2일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진행될 장면이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는 김 지사의 취임사다. 김 지사는 "2017년 4월 9일 밤 11시 57분, 강제로 멈추었던 경남도청 업무를 449일만에 정상화한다"며 "여러분이 어렵고 고단할 때 제가 그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경남에 대해서는 "경남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경남을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해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정의 첫 번째 과정과 마지막 결과는 도민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민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실용과 변화로 새로운 경남을 만들고,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경남을 키울 것"이라고 도

정철학을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대로 물려줄 순 없다"며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하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낳아 키우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당부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김 지사의 취임식은 2일(월) 오전 10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우창수와 개풍이 어린이 예술단'의 축하공연과 다문화 어린이와 도청 청원경찰이 함께하는 애국가 선창, 각계각층 도민 대표단 56인의 동반 입장 등이 예정되었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취임식을 준비한 이들과 출연하기로 한 도민들에 대해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화제만발 채널경남 특별 읽을거리



02면 경찰에 선거사범이 있다하여 신고를 하였더니..



14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창



16면 제8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이홍희 의장



취임 선서하는 김경수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식으로 출근한 첫 날 직원들에게 "겸손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일 아침 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겸손하고 유능한 일꾼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향해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어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와 창원충혼탑을 잇달아 참배했다. 수행원 없이 홀로 참배한 김 지사는 "민주주의의 보루 경남의 자부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새긴 대한민국의 역사,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각각 참배록을 남겼다.
 오전 9시,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백팩을 메고, 마주친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도지사 집무실로 향했다.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지난밤 태풍 이동경로와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고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전날 직접 주재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취임식 개최를 취소한 터라, 사무인수인계서와 취임선서서에 서명한 뒤 직원들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 절차를 간단히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취임 선서 뒤 직원들에게 간편 인사말에서 "선거과정에서 도민들께 경제와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경남이 제대로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소개하며 "이런 도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공직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도청운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민들의 요구대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정을 이끌겠다"며 "실용과 변화, 참여와 소통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능력과 실력 위주, 적소적재 인사, 청탁 시 반드시 불이익"이라는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적소적재'란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고 자리를 배치